

아태지역에서 미중의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대만해협 위기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성훈 책임연구원
aa0159@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아태지역에서 미중의 군사력 운용개념
- III. 대만해협 위기시 미중의 군사력 비교
- IV. 지역/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향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미중의 역내 군사력 균형을 △공중우세능력 △해양우세능력 △미사일능력 △지원능력 △핵능력으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시사점 및 대응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대만해협 위기시 미중의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공중우세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기술 우위로 군사적 우세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해공군력 현대화 및 첨단무기 개발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히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중 간의 치열한 군사력 경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로는 △KADIZ 등 한반도 주변 해공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증대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외교안보 이슈들의 부각가능성 △한미동맹의 역할 기여 증대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으로 우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동맹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식별하되, 중국의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주변국들의 군사력 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비대칭전략과 무기체계들을 개발 및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군사력 비교, 대만 해협, 군사전략, 지리적 근접성,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

목차

I. 문제 제기

II. 아태지역에서 미중의 군사력 운용개념

1. 중국
2. 미국

III. 대만해협 위기시 미중의 군사력 비교

1. 분석 대상 전력
2. 각 부문별 군사력 비교
 - 가. 공중우세 능력
 - 나. 해양우세 능력
 - 다. 미사일능력
 - 라. 지원능력
 - 마. 핵능력
3. 종합분석 및 향후 전망
 - 가. 군사력 비교 결과
 - 나. 향후 전망

IV. 지역/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향

1. 지역/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2. 대응방향

I. 문제 제기

- 2022년 5월 23일 개최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만 유사사태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공언과 7월 25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계획에 대한 중국의 심한 반발은 양지역의 민감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미중은 유사시 대만해협에서 위기관리를 통해 군사충돌을 회피하려 할것이나, 불신과 오인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제3차 대만위기가 사소한 사건에서 촉발되었듯이¹⁾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상태에서 무력시위 도중 오인사격이나 불시의 항공기 접촉으로 인해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내재
 - 위기가 확대되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시나리오는 △미사일 공격 △드서점령 △봉쇄 △침공 순으로 이루어질 것임²⁾
- 미중의 분쟁개시 결정에 있어 군사력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인 결정요인이 될 것임에 따라 양측의 군사력 균형 비교는 매우 중요
- 본 연구는 미중의 전반적인 군사력 비교보다는 양측의 군사적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대만해협 위기를 상정하고, 이 지역에 투입되는 전력들 위주로 평가를 시도
 - 시간적 범위는 2020년을 기준으로 군사력을 평가하나, 제3차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한 1996년과 본격적으로 미중 갈등이 시작되는 2010년도 일부 포함시켜 추세를 확인
 - 내용 범위는 공중우세, 해양우세, 미사일, 지원능력, 핵능력으로 구분

1) 1995년 대만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모교인 미코넬대에서의 강연을 위해 미국에 신청한 비자가 발급되자 이에 격분한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두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서 촉발되었음.

2) 최우선, “대만군사충돌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외교안보문제연구소, 『주요 국제문제분석』 2021-51(2021), p. 3.

- 연구방법은 이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질적(qualitative)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양적(quantitative)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도 주로 단순 수량비교(bean counting)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하여 성능지수³⁾와 질적 방법을 병행하여 유의미한 평가를 도출
- 역내 미중 간의 군사력 균형은 동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우리의 국가안보전략 수립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II. 아태지역에서 미중의 군사력 운용개념

1. 중국

- 중국은 ‘적극방어’ 군사전략에 기반하여 역내에서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 Access/Area Denial) 전략을 주요 군사력 운용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전략은 해양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원해에서 근해로의 접근을 거부하는 군사전략임
- A2/AD전략의 핵심은 도련선(Island Chain)⁴⁾내에서의 지역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1도련선은 쿠릴열도-오키나와-필리핀-말라카 해협 △제2도련선은 동경-사이판-괌-인도네시아를 연결한 선을 의미

3) 유사한 지수로 전력지수가 있으나, 비밀자료로 되어있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일반적으로 활용가능한 지수로는 더 니건의 성능지수로 전세계 각국들이 보유한 주요 무기체계들에 대해 성능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제시한 것임. J. Dunnigan, *How to Make War* (Harper Collins Publish, 2003), pp. 250-270.

4) 남서태평양의 섬들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선을 의미함

[그림 1] A2/AD 전략의 구사 범위



- 제1도련선에서 중국의 A2/AD 전력은 단거리대함미사일(DF-15), 재래식 잠수함(킬로급), 연안전투함, 지대함 순항미사일(실크웬 등), 전투기 등의 활용으로 미군의 접근을 거부
- 제2도련선에서는 중거리대함미사일(DF-21D), 재래식 및 핵공격잠수함, 폭격기(H-6, JH-7)등의 활용으로 미항모전단의 접근을 거부
- 대만해협 분쟁시 중국은 미사일 전력, 항공전력, 잠수함 및 수상함 전력을 동원하여 미군사력의 접근을 거부할 것이며, 이때 지리적 근접성은 중국의 연근해 작전능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
 - 지리적 이점은 중국이 대규모의 중소형 미사일 함정과 디젤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며, 중국의 항공력은 공중급유기의 지원없이 대만 인근에서 작전수행가능
 - 특히 항모 킬러로 인식되는 DF-21D와 DF-26 미사일은 A2/AD 전략의 핵심수단으로 △미국 항모전단의 접근차단 △미국이 전진배치되어 있는 지역주둔 미군 기지를 위협하는 역할로 활용

2. 미국

- 미국은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공해전투(Air-Sea battle)→합동작전접근개념(JOAC)→글로벌 영역에서의 합동접근 및 기동(JAM-GC)→다영역 작전(MDO)으로 발전되어 온 군사력 운용개념을 채택하여 발전시키고 있음

[그림 2] 미국의 역대 군사전략 변화



- 미국은 2015년 공해전투를 계승하는 새로운 군사전략개념으로 ‘국제공역에서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인 ‘JAM-GC’⁵⁾를 공식화
 - JAM-GC는 공해전의 보완적 개념으로 등장하였으며, A2/AD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의 지침을 제시
 - 분쟁발생시 △사이버전, 전자전을 통해 적의 지휘통제망 기능 제한 △동맹국 영토와 해상의 이지스함을 연결하는 미사일 방어망 운영 △주요 해상 수송로 봉쇄 △동맹국 영토에 미사일 배치를 통해 중국의 해상활동을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공해전을 실시한다는 개념
- 이후 JAM-GC를 발전시켜 다영역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을 주요 군사전략 개념으로 구상하고 있음
 - MDO의 기본개념은 ‘JAM-GC’와 동일하며, 지·해·공·우주·사이버 및 전자기 영역 등 전영역에 걸쳐 우위를 점하기 위해 행하는 전략⁶⁾

5)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Global Commons

6) D. Perkins, “Multi Domain Operation: Joint Combined Arms Concept for the 21st Century,” Army(2016), pp. 18-19; MDO는 미 육군에서 최초 개발한 개념으로 아직 합동 차원의 군사교리로 채택은 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공식화할 전망이다.

-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미사일과 지상군의 역할 부각과 전쟁 초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사이버전과 전자전의 역할을 중요시
-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미국과 동맹국 전력을 모두 활용하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전략을 추진중

III. 대만해협 위기시 미중의 군사력 비교

1. 분석 대상 전력

- 미국의 군사력은 [그림 3]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의 전력 위주로 괌과 일본 등에 주둔한 군사력과 전개자산을 대상으로 함

[그림 3]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조직



*출처: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http://pacom.mil>; 공군본부, 『외국군구조편람』(2020), pp. 26-38.

- 중국의 예상 투입 군사력은 분쟁지역과 이격되어 있는 북부, 서부전구, 수도인 북경의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부전구 전력을 제외한 동부, 남부전구 전력들의 투입을 가정

[그림 4] 중국군 지휘구조



육군	71/72/73 집단군	76/77 집단군	74/75 집단군	78/79/80 집단군	81/82/83 집단군
해군	동해함대(닝보) • 구축함대(2) • 잠수함대(2) • 항공사단(2)		남해함대(잔장) • 구축함대(2) • 잠수함대(2) • 항공사단(2)	북해함대(칭다오) • 구축함대(2) • 잠수함대(2) • 항공사단(2) • 라오닝함(1)	
공군	사령부(난징) • 전투사단(4) • 공격사단(1) • 폭격사단(1) • 비행여단(4)	사령부(청두) • 전투사단(2) • 공격사단(1) • 수송사단(1) • 비행여단(4)	사령부(광저우) • 전투사단(3) • 폭격사단(1) • 수송사단(1) • 비행여단(3)	사령부(선양) • 전투사단(4) • 공격사단(2) • 수송사단(1) • 비행여단(4)	사령부(베이징) • 전투비행 사단(3) • 폭격사단(1)
로켓군	9개 유도탄 여단	3개 유도탄 여단	10개 유도탄 여단	3개 유도탄 여단	7개 유도탄 여단
주요 임무	• 대만해협 문제 • 해상항로 안전 • 대일 도서분쟁	신장, 티벳 등 소수민족 분쟁 대응	남해 영토 수호 해상항로 안전 보호	한반도 및 러시아 방향으로부터의 군사충돌 대응	수도 베이징 안전수호

*출처: 공군본부, 『외국군구조편람』, pp. 57-64; 합동군사대학교, 『중국 국방전략』, (2021), pp. 83-95.

2. 각 부문별 군사력 비교

가. 공중우세 능력

1) 투입 항공력 규모

- 미국은 원거리에 위치한 지형으로 불리한 반면, 중국은 본토에서 약 750km, 해안에서 150km 이격되어 있어 지형적인 이점 보유
- 대만 분쟁에서 투입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항공력 규모는 [표 1]과 같음

[표 1] 대만해협 위기시 미중의 투입 예상 전투임무기

	미국			중국	
	TYPE	기종	대수	기종	대수
폭격기	폭격기	B-52	5	H-6형	130
전투기	공대공	F-15	43	J-7	210
				J-8	90
				J-15	24
				J-16	96
		F-35	50	Su-27/J-11	176
		F-22	45	J-20	50
	다목적	F-16	58	J-10	174
			JH-7	120	
대지공격기	ATK	A-10	18	Su-30MKK	96
미 해군/해병대 전투기:F/A-18 등			288		
계			507	계	1,166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2022), pp. 247-300; 인도태평양양공군사령부 홈페이지 <http://pacaf.af.mil>; 합동군사대학교, 『중국 국방전략』, pp. 200-206; 위키백과 종합

- 미국이 투입가능한 전투임무기는 주한 미공군전력을 제외한 총 507여대로 구성⁷⁾

7)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공군 전력들과 미 해군, 해병대 전투기들로 구성되어 있음.

- 주일미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공군사령부 예하 전투임무기는 총 219대이며, 해군의 경우 1996년 3차 대만 해협 위기시 3함대 예하 항모를 추가하여 총 3척의 항모가 동원되었음을 가정할 경우, 총 300대 투입가능⁸⁾
- 더불어 미 해병대의 3해병원정군이 투입되며, 여기에는 1개의 해병 비행단에 소속된 약 100여대의 FA-18기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미 해군과 해병대의 투입가능 전력은 총 400여대이나, 중국의 위협 및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70% 투입을 가정하면 288여대임
- 중국은 동부, 남부전구 소속의 항공력과 해군 항공에 속해 있는 144대를 포함하여 총 1,166여대의 전투임무기를 투입 예상

2) 군사력 비교

-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양측의 항공기 성능을 공대공(A/A)과 공대지(A/G)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음⁹⁾

[표 2] 대만 해협 위기시 미중 투입 예상 항공기 성능분석

기종	미국					중국					
	성능지수		대수	종합지수		기종	성능지수		대수	종합지수	
	A/A	A/G		A/A	A/G		A/A	A/G		A/A	A/G
B-52	1	54	5	5	270	H-6	5	10	130	650	1,300
F-15	54	24	43	2,322	1,032	J-7	10	2	210	2,160	432
						J-8	15	2	90	1,440	192
						J-15	28	10	24	672	240
						J-16	28	10	96	2,688	960
F-35	22	88	50	1,100	4,400	J-11	26	9	176	4,576	1,584
F-22	100	11	45	4,500	495	J-20	22	88	50	1,100	4,400
F-16	32	40	58	1,280	2,320	J-10	16	13	174	2,784	2,262
						JH-7	6	2	120	720	240
A-10	6	59	18	354	108	Su-30	25	40	96	2,400	3,840
F-18	29	44	288	8,352	12,672	MKK					
계				17,913	21,297	계				19,190	15,450

8) 각 항모에는 5개의 비행대대가 존재하며, 각 비행대대는 20대 내외의 FA-18전투임무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가정.

9) 더니건의 성능지수는 A/A에서는 F-22를 100점 만점으로, A/G에서는 B-2를 100점으로 가정하고, 전투반경, 생산연도, 무장 탑재량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 항공기의 능력을 지수화하고 있고, 종합지수는 성능지수에 무기체계의 수량을 곱한 값을 의미함. J. Dunnigan, *How to Make War*, pp. 250-270.

- [표 2] 종합지수에서는 중국의 항공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조기경보 등의 지원능력과 [표 3] 대만의 항공력을 고려하면 미국이 우세

[표 3] 대만 시나리오시 대만의 투입 예상 항공력 및 종합지수

기종	성능지수		대수	종합지수	
	A/A	A/G		A/A	A/G
F-16V	32	40	77	2,464	3,080
미라지 2000	24	24	53	1,272	1,272
F-5E/F	7	9	84	588	756
F-CK-1	7	9	127	889	1,143
계			341	5,213	6,251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p. 247.

- 미국의 항공력은 중국에 비해 공대공에서는 근소하게 열세인 반면, 공대지에서는 우세한 편으로 미국은 확전을 고려하여 중국 본토로의 공격은 자제할 것이므로 공대공 전투에 의한 공중우세에 중점
 - 투입 항공기 규모에 있어 미국은 2.2배 정도의 열세를 보이고 있으나, F-22, F-35 등으로 구성된 5세대 전투기 전력과 ISR, 전자전기와 같은 지원전력 등 우세한 질적 능력을 보유
 - 중국도 5세대 전투기인 J-20와 J-11/Su-30MKK 등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J-7, J-8과 같은 3세대 전투기 전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능력에 있어 열세
- 1996년 제3차 대만 위기시 중국은 주로 J-7, J-8 등 700여대의 2/3세대 항공기를 투입하였으나, 작전반경이나 무장에 있어 전투능력이 제한
 - 미국은 F-5 등의 공군 전투기들과 항모 3척에서 발진 가능한 3/4세대 항공기들로 구성되었음에 따라 공중우세 확보가 가능하였음

나. 해양우세 능력

1) 투입 수상함 규모

- [표 4]는 투입가능한 양측의 대표적인 수상함 대수를 비교한 것임¹⁰⁾

[표 4] 미중 투입 예상 수상함의 대수 비교

구분	미국			중국		
	함급	배수량(톤)	수량	함급	배수량	수량
항모 (CVN)	니미츠급	106,000	3	산둥급	70,000	1
				랴오닝급	60,000	1
구축함 (DDG)	Zumwalt급	15,900	2	난창급	13,000	6
				쿤밍급	7,500	24
				란저우급	7,000	6
	타이콘데로가급	9,800	2	선양급	7,300	2
				광저우급	6,200	2
	알레이 버크급	9,000	30	선전급	6,600	1
				항저우급	8,000	4
	인디펜던스급	3,100	12	루후급	4,800	2
장카이급				4,000	32	
상륙함	LHA(아메리카급)	45,000	2	075형	40,000	2
	LHD(와스프급)	41,000	3	071형	25,000	8
	LPD(샌안토니오급)	25,000	5	072형	4,800	39
	LSD(페리급)	16,000	6	073형	2,000	10
				074형	656	12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247-290.; 태평양함대사령부 홈페이지 <http://cpf.navy.mil>;
합동군사대학교, 『중국 국방전략』, pp. 173-187; 위키백과 종합

- 미국 인도태평양함대의 주요 수상 전투함의 배치를 보면, △3함대에 항모 2척 포함 전체 전력의 75%인 49척을 배치하고 있고, △7함대에 항모 1척 포함 14척을 배치하고 있음

10) 미군의 전력들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전력과 2020-21년 사이 전개 및 운용한 전력들의 추이를 고려한 것임.

- 중국 해군의 경우 △북해함대에 19척(항모1척 포함) △동해함대에 27척 △남해함대에 27척 (항모1척 포함)을 배치하고 있음.
- 잠수함의 경우 미국은 3함대에 35척, 7함대에 3척을 배치하고 있음, 전략핵추진잠수함은 (SSBN) 3함대에만 배치하고 있고, 7함대에는 전술핵추진잠수함(SSN)만 배치
- 중국해군은 북해함대 및 남해함대에만 각각 1척과 3척의 SSBN을 배치

[표 5] 미중 투입 예상 잠수함의 대수 비교

구분		미국			중국		
		함급	배수량(톤)	수량	함급	배수량	수량
잠수함	SSBN	오하이오급	18,750	10	진급	8,000	4
	SSN	씨울프급	9,100	5	한급	5,500	3
		버지니아급	7,900	7	상급	7,000	6
		LA급	6,900	16	명급	2,113	11
					월급	3,600	13
					킬로급	3,076	12

*출처: [표 6] 참고자료와 동일

2) 군사력 비교

- 해양우세 확보를 위한 양측의 수상전투함 성능을 성능지수¹¹⁾를 적용하여 분석해 보면 [표 6]과 같음
- 항모전력에서 니미즈급 핵추진 항모는 대함·대공 능력에 있어 중국의 산둥함과 랴오닝함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며, 중국은 '21년부터 제3의 항모인 광둥함을 제작하여 '23년 작전배치를 할 것으로 예상¹²⁾

11) 이 지수는 J. 더니건이 각 수상함정의 대함(100점 만점), 대잠(25), 대공(100), 방호도(10)에 대해 상대적으로 평가한 지수임. 예를 들어 니미즈 항모는 대함 100, 대잠 24, 대공 100, 방호도 10 이므로 234의 점수를 가지며, 3대 보유시 234×3=702의 종합점수를 가짐. 더니건의 평가지수에 나와있지 않은 일부 전력들은 성능과 배수량을 고려하여 유사한 전력들의 지수를 적용하였음.

12)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세계 주요군사동향』 (2021), p. 32.

- 해양우세를 위한 수상함의 주전력은 구축함으로 소형인 장카이급을 제외하고는 수적으로 비슷하나, 성능지수 평가에 따른 종합능력은 미해군이 2,532(미):908(중)로 우세
- 잠수함 전력도 종합지수가 2,490(미):1,486(중)으로 미해군이 원근해 작전에서의 우세를 점하고 있음
 -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은 원근해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은 4척에 불과하고, 대부분 재래식 잠수함전력으로 원근해에서의 장기간 작전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음

[표 6] 미중 투입 예상 수상함의 성능 비교

구분	미국				중국							
	함급	성능 지수	수량	종합 지수	함급	성능 지수	수량	종합 지수				
항모 (CVN)	니미츠급	234	3	702	산둥급	92	1	92				
					랴오닝급	92	1	92				
구축함 (DDG)	줌왈트급	38	2	76	난창급	8	6	48				
	타이콘데로가급	67	2	134	쿤밍급	20	24	480				
	알레이 버크급	38	30	1,140	란저우급	8	6	48				
	인디펜던스급	40	12	480	선양급	7	2	14				
	계	2,532	광저우급	8	2	16						
			선전급	12	1	12						
			항저우급	20	4	80						
			루후급	9	2	18						
상륙함	LSD(폐리급)	18	6	108	장카이급	6	32	192				
					LHA(아메리카급)	16	2	32	075형	13	2	26
					LHD(와스프급)	16	3	48	071형	13	8	104
					LPD(샌안토니오급)	16	5	80	072형	4	39	156
					073형	4	10	40				
잠수함	SSBN	오하이오급	31	10	310	074형	4	12	48			
						진급	52	4	208			
	SSN	씨울프급	100	5	500	한급	34	3	102			
		버지니아급	80	7	560							
	LA급	70	16	1,120	상급	34	6	204				
계	2,758	명급	14	11	154							
		원급	50	13	650							
		킬로급	14	12	168							
총계				5,290				2,952				

- 제3차 대만 위기시 미국은 인디펜던스 및 니미즈급 항모 3척, 전투함 8척, 잠수함 3척, 상륙함 3척을 동원
 - 중국은 5척의 구축함과 잠수함을 훈련 명목으로 대만해협 지역으로 급파하였으나, 그 성능과 규모에 있어 미국에 절대적으로 열세
- 결론적으로 항모 및 주요 수상함 전력에 있어 양적인 부분에서는 양측이 비슷하나 질적인 면에서 미국은 우세를 지니며, 중국은 재래식 잠수함의 양적인 우세를 지님

다. 미사일능력

- 미중 간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비교는 미국이 해당지역에 지상 미사일 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전면전이 아닌 한 미본토의 ICBM을 미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중국의 미사일능력인 △지상발사 대함미사일(ASBM) △대함 순항미사일(ASCM) 위주로 분석

1) 중국의 탄도미사일 전력 현황 및 배치

- 중국은 [표 7]과 같이 DF-5, DF-31 계열의 ICBM 탄도미사일 전력화 이후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DF-41을 2020년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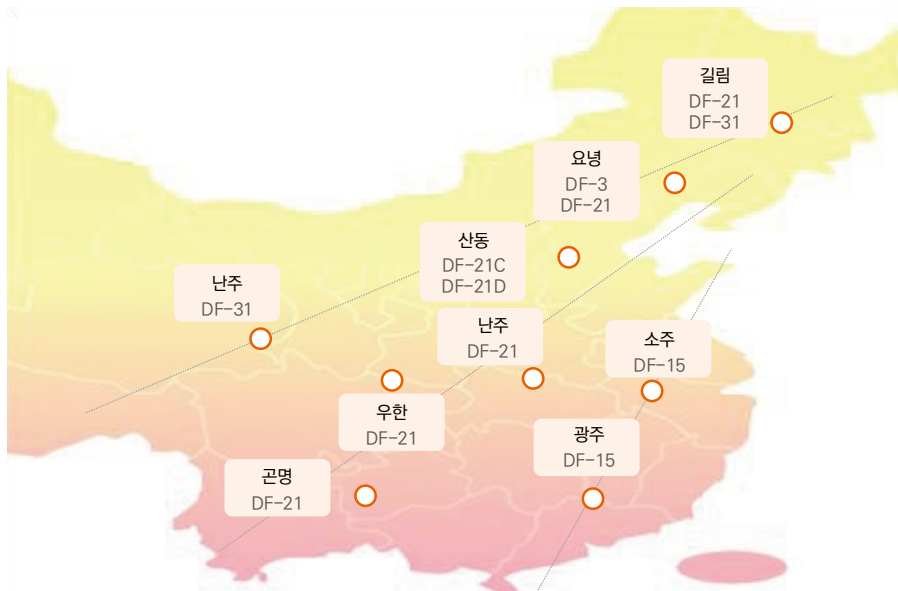
[표 7] 중국의 미사일 전력 현황

운반체	보유	실전배치	사거리(km)
DF-4	-	1980	5,500
DF-5A	20	1981	12,000
DF-15	144	1994	600
DF-21	80	1996/2017	2,100
DF-21C	136	2010	1,700-2,500
DF-21D(ASBM)	30	2012	2,100
DF-26(ASBM)	72	2017	4,000
DF-31	8	2008	7,000
DF-31A	48	2007/2018	11,200
DF-41	-	2020	12,000
JL-1(3척)	48	2010	2,150
JL-2(3척)	48	2016	7,000

*출처: SIPRI, SIPRI Year Book(2020), pp. 234-278; 합동군사대학교, 『중국 국방전략』, p. 321.

- 중국은 [그림 5]와 같이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생존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여 배치
 - 해안선을 기준으로 내륙 근거리로는 DF-11/15와 같은 SRBM을, 중간 내륙 지역으로 DF-21A/C와 같은 MRBM을 배치
 - 또한 내륙으로는 DF-3/31과 같은 ICBM을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DF-21D, DF-26과 같은 미항모의 주접근거부전력은 중부 내륙쪽에 위치함으로써 생존성과 타격력을 보장

[그림 5] 중국의 미사일 전력 배치



*출처: Ibid., pp. 209-215.

2) 지상발사 대함미사일(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

- 중국은 항모와 같은 고가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DF-21D를 세계 최초로 실전배치 하였고, 괌 부근의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DF-26을 실전 배치하는 등 A2/AD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

- 특히 DF-21D는 사정거리가 1,500-2,000km로서 미사일에 장착된 여러 개의 탄두가 각각의 추력장치를 이용하여 기동함으로써 요격회피 능력이 향상된 ‘기동탄두재진입체(MaRV, Maneuverable Re-entry Vehicle)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¹³⁾
 - 다만 DF-21D는 미사일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확한 레이더지원 시스템이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표적 정보 탐지, 분석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순간적인 에러 수정 능력이 부족

3) 대함 순항미사일(ASCM, Anti-Ship Cruise Missile)

- 중국은 1996년 제3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 미국의 항모전단에 의해 봉쇄되었던 교훈을 반영하여 다수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하였고, 미국의 항모 타격과 이지스함 방공체계의 무력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상발사 크루즈미사일(GLCM)은 CJ-10과 DF-10을 들 수 있는데, 수상전투함에 대한 공격을 위해 2006년에 실전배치가 이루어졌음
 - 주력인 DF-10은 사거리 1,500km 이상, 내부항법장비와 GPS, 지형대조시스템을 갖추었으며, CEP는 10m임¹⁴⁾
- 중국 해군의 ASCM은 대부분 항저우급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SS-N-22(사거리 120km)와 킬로급 잠수함에서 운용중인 SS-N-27 대함미사일(사거리 300km)임

4) 소결론

- 1996년 제3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 중국은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전력에 있어 매우 열세였음을 교훈 삼아 지속적인 전력발전을 추구해온 결과 대만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의 상대적 우세로 평가
- 중국은 이 부문에서의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원거리에서 미사일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ISR능력 △기존 대함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불완전성 개선 △플랫폼인 장거리 타격항공기와 잠수함의 능력에 집중하여 발전

13) 신영순, 『미래전과 미사일 중심 무기체계』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1), p. 239.

14) 합동군사대학교, 『중국 국방전략』, p. 323.

라. 지원능력

- 중국과 미국은 A2/AD전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영역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사이버전, 우주전, 전자전 능력을 통해 이를 지원
- 중국은 [그림 6]과 같이 전략지원부대에 네트워크시스템부라는 조직을 통해 사이버전, 전자전, 심리전을 통합한 망전일체전(網電一體戰)을 추구

[그림 6] 중국의 전략지원부대 조직



*출처: R. Burton, The PLA Strategic Support Force: Leadership and Structure (Arlington: Project 2049 Institute, 2017), p. 3.

1) 우주전

- 미국은 2020년 1,300여기의 위성을 운용함으로써 500여기의 위성을 보유한 중국을 압도하고 있으나, 중국의 평균 위성발사 속도는 2010년대 이전보다 3배로 증가할 정도로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은 위성을 교란, 기능저하, 손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상 레이저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중국판 GPS인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 시스템을 완성

- 지상,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위성을 파괴하는 요격체계인 ASAT를 개발중에 있으며, 완성시는 저궤도(LEO)에서 활동중인 미국 위성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
- 미중은 통신 및 감시정찰 위성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전파방해 시스템 및 레이저 거리 측정소 등을 이용해 상대방 위성에 대한 재밍이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
- 우주전 능력은 1996년과 2010년에는 미국의 압도적 우세, 2020년에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우세이나, 대만해협 시나리오에서는 부분적으로 대등한 군사력 균형을 보이고 있음

2) 사이버전

-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네트워크중심전(NCW)에 영향을 받아 사이버 무기체계를 본격적으로 개발해왔고, 2008년 이후에는 정보수집용, 방호/공격용 사이버 무기체계를 발전 시켜 왔음
 -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악성코드를 개발하고 해킹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기술력을 보유
 - 다만 해킹능력 등 공세적 사이버전 능력은 우수하나, 방어적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과 경쟁에서 절대 불리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는 미중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위의 이유로 Tier1 국가로 미국을 유일하게 꼽았으며, 중국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Tier2 국가로 선정¹⁵⁾
-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평가시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중의 하나는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및 사이버 공격 후 회복 탄력성임
 -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러한 분야에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음

15) <https://iiss.org/blogs/research-paper/2021/06/cyber-capabilities-national-power>(accessed: May 25, 2022)

- 즉, 민간기업의 기술을 응용한 미국의 사이버공격에 보안이 취약한 중국의 사이버망이 공격받을 경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우주전 능력과 유사하게 사이버전에 대한 미중의 능력은 1996년에는 미국의 압도적 우세, 2010년과 2020년에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

3) 소결론

- 중국의 A2/AD전략과 미국의 다영역작전에서 양측은 분쟁 초기 전장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정보전과 사이버전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임
- 양측은 분쟁 초기 상대 위성이나 정찰기 등 정보자산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위성요격미사일 (ASAT) 등과 같은 하드킬 수단과 전자전, 사이버전, EMP와 같은 소프트 킬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임
- 우주전과 사이버전 능력은 1996년과 2010년에는 미국의 절대적 우세, 2020년에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세 내지는 대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2020년대 후반에는 중국의 추격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 것임

마. 핵능력

-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면전의 위협으로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핵위협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이 필요

1) 미국의 핵능력

- 탈냉전기 이후 미국은 핵탄두의 수량은 감축시키되 핵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질적수준은 강화시키는 추세

[표 8] 미국의 핵무기 현황

운반체		발사체	대수	유효거리(km)	탄두	운용탄두 및 운반체
전략 핵무기	ICBM	Minuteman III	400	13,000	800	탄두: W78/87 MK-12A(MIRV)
	SLBM	Trident II	248	-	1,920	탄두: W78/W88 MK-4A(MIRV) MK-5(MIRV)
	폭격기	B-52H	46	16,000	528	탄두: W80 ALCM(최대 20발)
		B-2	20	11,000	322	B61-7/-11, B83-1 (최대 16발)
전술 핵무기	중력 폭탄	F-15, F-16 PA-200(나토)16)	n/a		230	B61-11, -12

*출처: Hans M. Kristensen, "United States nuclear forces", 2020,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6. Issue-1 (July 2020)

- 미국은 핵3축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ICBM의 경우, 2020년대부터 Minuteman III를 대체하여 새롭게 배치될 GBSD(Ground-Based Strategic Deterrent)의 개발 추진중¹⁷⁾
 - SLBM의 경우, Trident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Ohio급 잠수함(SSBN)은 2027년부터 퇴역시킬 예정으로 대체 프로그램 SSBN(X)을 통해 콜롬비아급 잠수함을 2030년대에 운용할 예정¹⁸⁾
 - 전략폭격기의 경우 B-52와 B-2를 대체하여 2020년대 중반에는 차세대 전략폭격기 B-21을 배치할 예정

16) 미국과 나토는 F-15, F-16, PA-200에서 중력폭탄 B61-12을 투하 가능토록 개조하여 2022-2024년에 유럽에 전개시킬 예정이다. F-35A에는 2024-2026까지 B61-12을 투하 가능토록 개조할 예정이다.

17) GBSD는 이동식발사대(TEL)나 터널에 배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18) Amy F. Wolf, "U.S. Strategic Forces: Background, Developments, and Issues."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 pp. 22-24.

2) 중국의 핵능력

- 중국은 최소억제에서 제한적 억제로 전략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0년에 350여기를 보유함으로써 세계 3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증가¹⁹⁾
- 중국은 2020년에 ICBM DF-41의 전력배치와 더불어 탄도미사일의 생존성 강화를 위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간쑤성 인근 등에 다수의 핵미사일 격납고를 건설중²⁰⁾
- 지상 미사일 전력과 함께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SLBM 쥐랑-2(JL-2)를 전력화하였고, 이 미사일의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사거리 12,000km의 쥐랑-3를 개발 중
- 전략폭격기는 전투반경 3,000km를 가진 H-6K를 2009년에 실전배치하였고, 2025년을 목표로 전투반경 12,000km 및 스텔스 성능을 보유한 H-6N 전략폭격기 개발을 추진중

[표 9] 중국의 핵무기 현황

운반체	발사기 수	실전배치	사거리(km)	탄두위력	핵탄두수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DF-5A	20	1981	12,000	1×4-5Mt	10
DF-5B	10	2015	12,000	3×300kt(MIRV)	30
DF-15	144	1994	600	1×10-50kt	-
DF-21	80	1996/2017	2,100	1×200-300kt	40
DF-26	72	2017	4,000	1×200-300kt	36
DF-31	8	2008	7,000	1×200-300kt	8
DF-31A	48	2007/2018	11,200	1×200-300kt	48
DF-41	-	2020	12,000	3×200-300kt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JL-2	48	2016	7,000	1×200-300kt	48
항공기					
H-6K	20	2009	3,100	1×BOMB	20
H-6N	-	2025	-	1×ALBM	-
기타 비축 핵탄두					80
계	256				350

*출처: SIPRI Year Book(2020)

19) 미국방부는 2020년 9월 의회 제출 보고서에서 중국은 향후 10년간 핵무기 보유량을 두배 정도 늘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 미국과학자연맹 홈페이지, <https://fas.org/issues.icbm>(accessed, May.10)

3) 소결론

- 핵능력은 미국이 압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의 핵무기 성능과 수량, 방어체계의 우세로 제1격 성공률은 매우 높은 반면, 중국의 제2격 성공률은 제한되는 것으로 평가
- 따라서 중국은 핵무기 수량의 증대는 물론 광활한 중국 본토 지역에 분산된 핵기지를 건설함으로써 핵안정성을 기하고, 방공망 체계를 강화하여 제2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 결론적으로 핵능력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현대화를 통한 핵무기의 지속적인 감축과 중국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15대 1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3. 종합분석 및 향후 전망

가. 군사력 비교 결과

- 대만해협 위기시 미중의 군사력을 평가하면, 미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군사력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상황
- [표 10]은 제3장에서 분석한 미중 간의 군사력 균형을 종합한 것임

[표 10] 미중 간 군사력 균형 분석 결과

구분	대만 해협 시나리오		
	1996	2010	2020
공중우세능력	U1 (C5)	U2 (C4)	U4 (C2)
해양우세능력	U1 (C5)	U2 (C4)	U2 (C4)
미사일능력	U1 (C5)	U3 (C3)	U4 (C2)
지원능력	U1 (C5)	U2 (C4)	U3 (C3)
핵능력	U1 (C5)	U1 (C5)	U1 (C5)
범례	△미국(U1) 절대우세 → 중국(C5) △미국(U2) 우세 → 중국(C4) △미국(U3) 대등 중국(C3) △미국(U4) 열세 → 중국(C2) △미국(U5) 절대열세 → 중국(C1)		

- 공중우세능력은 지리적 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야로 미중의 항공력만 놓고 본다면 양적 우위를 지닌 중국이 근소하게 우세하나, 대만 항공력을 포함하면 미국이 우세
 - 대만해협은 핵심적 이익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중국은 초도 투입전력 외에 내륙지역의 항공력을 증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원전력 차단 여부가 미국의 공중우세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 해양우세능력은 주요 수상함 전력에 있어 양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이 우세하나 질적인 면을 고려한 종합지수에서 미국이 우세
- 미사일능력은 중국의 DF-21D, DF-26 등 대함미사일 능력과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능력의 발전으로 중국이 우세
- 우주전과 사이버전, 전자전 등 지원능력은 1996년과 2010년에는 미국의 절대적 우세였고, 2020년에는 미국의 근소한 우세 내지는 양측이 대등한 능력 보유
- 핵능력은 미국이 압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으나, 중국의 핵기지 분산과 방공망 강화로 제2격 능력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나. 향후 전망

- 미국은 군사력 현대화와 첨단전력 개발을 통해 중국에 상대적 우세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
 - △포드급 항공모함 추가확보 △오하이오급 잠수함(SSBN)대체 위한 콜롬비아급 잠수함(SSBN)개발 △차세대 전폭기 B-21 개발 △F-35 스텔스기를 2030년대 중반까지 2,000여대 이상 확보할 계획임
 - 신기술을 활용한 무기개발은 △수상무인정 △무인잠수정 △무인전투기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포인 레일건 △고에너지 레이저무기에 초점을 맞추어 202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진행중

- 중국은 △2049년까지 ‘강군몽’ 달성 △2027년까지 군현대화 달성으로 영토분쟁 관련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능력을 강화
 - 항공력은 △스텔스 전폭기인 H-20 개발 △5세대 전투기인 J-20의 실전배치와 추가생산²¹⁾ △차세대 스텔스기인 J-31의 2020년대 중반 실전배치를 목표로 추진중

[표 11] 중국 해군력 발전 전망

구 분	2020	2025	2030	2040
SLBM 잠수함	4	6	8	10
핵추진잠수함	6	10	14	16
디젤잠수함	47	47	46	46
항공모함	2	3	5	6
구축함/순양함	102	120	135	140
호위함/초계함	102	120	135	145
LHA급 상륙함	0	4	4	6
LPD급 상륙함	7	10	14	14
총규모	270	320	361	383

*출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 for U.S. Navy, RL33153. (2021.3.6.) <http://crsreports.congress.gov>(accessed: May 27, 2022)

- 해양력은 [표 11]과 같이 수상함·잠수함의 규모증강으로 양적우위를 확보하고, 성능이 발전된 제3의 항모 개발 등 질적능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
 - 미사일능력은 장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중으로 △대함 탄도미사일인 DF-21D, DF-26의 수량 확충 △극초음속 무기인 DF-17의 전력화△ICBM 기지의 추가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²²⁾
 - 지원능력은 △상대방의 위성을 격파하기 위한 대위성무기 및 위성재머 개발 △방어적 사이버능력 강화 △전자기펄스(EMP)탄 △전자전 무인기 등을 핵심전력으로 개발중
- 결론적으로 향후 미국은 첨단 군사기술 우위로 해당 지역내에서 군사력 우세를 유지하려 할 것인 반면, 중국은 해공군력 현대화 및 첨단무기 개발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려 노력할 것임

21) 정한범 외, 『2021 동아시아 전략평가』 (동아시아안보전략연구회, 2021), p. 204.

22) DoD, Release 2021 Report on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RC, (2021.11.3) <http://www.defense.gov/news/release/article/2831819>(accessed: May 29, 2022)

IV. 지역/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향

1. 지역/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 첨예한 미중의 군사력 경쟁하에서 양측의 군사력 균형은 지역 및 한반도 안보에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
 - 대만해협 위기시 미국은 지리적 불리점과 중국의 우세한 연근해 작전능력으로 A2/AD 능력을 무력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할 것임
 - 참고적으로, 남중국해에서 분쟁시는 5가지 영역 대부분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세로 중국은 인공섬 건설 완료와 원거리 전력 투사능력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현상유지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
 - 일례로 남중국해에서 분쟁시 공중우세능력에서의 종합지수는 미국(19,527), 중국(12,806)으로 대만의 항공력을 제외하고서라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편임
 - 미중 간에 군사력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며, 미국의 원거리투사전력 대 중국의 A2/AD 전력을 중심으로 전개
 - 미국 국방비는 2022년 7,780억 달러로 전세계 국방비의 40%를 점유할 정도의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첨단군사기술을 활용한 원거리투사능력 발전으로 군사적 우세를 유지하려고 할 것임
 - 중국의 국방비는 2,520억 달러로 미국 대비 열세이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6.7%에 달할 정도로 군사력 현대화에 노력중으로 무인기, 극초음속 미사일, 제3항모 건조, 장거리 폭격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의 강화에 집중
 - 미중 간 동맹국 활용 및 군사기지의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
 - 미국은 중국의 지리적 이점과 A2/AD 능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역내 미군 전진배치 강화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탈퇴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진 △비대칭 우위인 동맹국을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것임

- 중국 또한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을 통해 원거리 투사능력 부족이라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인공섬 논란에 대해 중국의 행동은 도전적으로 전개될 것임
- 우리 안보에 미치는 함의로 우선 미중 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중국은 유리한 상황조성과 영향력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주변 해공역에서 군사활동 증가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증대
 - 그 형태로는 △중국 군함과 해경함정의 서해상 잠정조치수역인 128° E선 침범 △중국 군용기의 빈번한 KADIZ 진입을 들 수 있음
 - 특히 KADIZ의 경우 중국 단독에서 중러 연합으로, 소규모 정찰기 위주에서 다수 전투기·정찰기·폭격기의 혼합편대로 구성되는 등 그 규모와 성격이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경향
- 미국은 대중 세력균형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기여 확대를 원하는 반면, 중국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
 - 미국은 다영역작전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사일방어체계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참여 등 한국의 군사적 기여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
 -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영향력 완화를 위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무기를 활용하여 균형적 자세를 취하도록 설득 및 강압하려 할 것임
-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대만해협 긴장 고조시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이슈들의 부각 가능성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부각, 북핵문제의 심화, 대만과의 외교적 문제, 사드문제·공급망과 같은 경제안보에 있어 중국과의 관계 설정, 군비경쟁 등 중요한 안보 이슈들에 부정적으로 영향

2. 대응방향

- 미중의 전략적 경쟁하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하여 중국의 동맹이완 시도와 군사적 강압을 차단하되 노골적인 견제는 지양
 -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력 경쟁과 관련하여 동맹국들에 기대하는 협력 수준을 구체화할 것임

- △미국의 MD체계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며, 이 경우 중국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노골적인 대중국 견제는 지양하되,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전략에 동맹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식별할 필요
- 중국의 한반도 주변 해공역으로의 영향력 확대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한국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대한 대응목표가 단순히 진입저지에 있는지, 우발충돌 방지에 있는지, 혹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질 것임
 - 더불어 중국군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시 이에 대응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중러 연합 공군의 진입에 대응한 한미 연합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시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임
- 군사적 대응방향으로 주변국들의 군사력 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비대칭전략과 무기 체계들을 개발 및 확보할 필요
 - ‘한국형 A2/AD’ 전략은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 주변국 위협의 접근을 차단하고 작전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세적 방어전략 개념
 - 이 전략은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함과 동시에 북핵 미사일 위협의 억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한국군이 구축중인 3축체계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할 필요
 - 구체적 방법으로는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이용하여 한반도 방위권내 주변국의 군사적 접근 거부 △수상함과 재래식 잠수함 등을 이용하여 다중 차단선 형성 △핵잠수함, 지대지 미사일, 스텔스전투기 활용 전략적 타격 및 억제 유지 등을 들 수 있음
 - 이의 구현을 위해 비대칭적 전략자산을 확보해야 하고, 나아가 첨단기술의 군사적 결합을 통한 한국적 군사혁신을 추진할 필요

참고문헌

강석률.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과 우리의 대응방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단』 제1831호. 2020.

공군본부. 『외국군구조편람』. 2020.

국방부. 『2020 국방백서』. 2020.

신영순. 『미래전과 미사일 중심 무기체계』.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1.

정한범 외. 『2021 동아시아 전략평가』. 동아시아안보전략연구회, 2021.

최우선. “대만군사충돌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외교안보문제연구소. 『주요 국제문제분석』 2021-51호. 2021.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세계 주요군사동향』. 2021.

합동군사대학교. 『중국 국방전략』. 2021.

DoD.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S.: Shap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2018.

_____. Release 2021 Report on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RC, 2021.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2.

Kristensen Hans M. “United States nuclear forces.” 2020,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6. Issue-1. July 2020.

Perkins D. “Multi Domain Operation: Joint Combined Arms Concept for the 21st Century.” *Army*. 2016.

Wolf Amy F. “U.S. Strategic Forces: Background, Developments, and Issues.”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

SIPRI. *SIPRI Year Book*. 202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 for U.S. Navy*, RL33153.(2021). <http://crsreports.congress.gov>(accessed: May 4, 2022)

미국과학자연맹 홈페이지. <https://fas.org/issues.icbm>(accessed: May 10, 25, 2022).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http://pacom.mil>(accessed: May 26, 2022).

미국 인도태평양공군사령부 홈페이지. <http://pacaf.af.mil>(accessed: May 26, 2022).

미국 인도태평양함대사령부 홈페이지. <http://cpf.navy.mil>(accessed: May 26, 2022).

위키피디아 백과 홈페이지. <http://ko.wikipedia.org/wiki>(accessed: May 29, 2022).

Abstract

The Balance of Military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Asia-Pacific Region : Focusing on the Taiwan Strait Crisis Scenario

Sung-Hoon Le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study analyzes the balance of military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by dividing it into △Air superiority △ Maritime superiority △Missile capability △Support capability △Nuclear capability and derives implications & response strategy.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military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during the Taiwan Strait crisis is as follows. The U.S. maintains its military superiority in almost all areas except air superiority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China is rapidly narrowing the military gap with the U.S. In the future, the U.S. will try to maintain its military superiority with overwhelming military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China will try to narrow the gap with the United States by modernizing its naval and air forces and developing advanced weapons. In particular, China will strengthen its power centering on its Anti-Access/Area Denial capabilities. The implications of fierce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e △ the possibility of military conflict in sea and air ar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KADIZ △ the possibility of highlighting diplomatic and security

Abstract

issues surrounding Korea △the U.S. alliance's contribu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Korean-style anti-access/area denial” strategy as our response strategy to prepare for these scenarios, and to develop & secure asymmetric strategies and weapon systems to implement it.

Keywords: The balance of military power, Taiwan Strait, military strategy, geographical proximity, anti-access/area denial strategy (A2/AD)

INSS

전략보고

July 2022. No. 171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 02-6191-1000 📠 02-6191-1111 🌐 www.inss.re.kr